

花樹會의 변역나무

화수회라는 것은 그 시초가 위(韋)씨의 종족을 모아 만든 아름다운 일인데 이 계(契)를 일러 화수회라 하였으니 감탄할 일이다.

화수회는 하나의 신목이다.

나무의 근본은 그 뿌리에 있으니 나무의 가치가 천재가 있다 해도 그 뿌리는 하나요. 사람도 각 파가 있으나 그 조상은 한 분이라, 세상 사람들이 모두 화수에 대한 애정을 알고 있으니 운자도 화수의 이치를 모르고 있으니 참으로 애석할 다름이다.

사람은 몸이 있어 부인이 생산을 할 수 있으니 가히 감탄스러움을 이길 수 없다.

이들도 만물이 선조가 있으니 나무로 말 하면 꽃에 해당하는 것이요, 그 근본은 뿌리가 아니겠는가! 뿌리가 깊어 뻗을수록 나무가 무성해지고 나무가 무성할수록 꽃이 많이 핀다는 것은 진리다.

그러니 뿌리는 선조요, 꽃과 잎은 자손에 해당하는 것이니 하물며 같은 조상을 모신 자손으로서 어찌 동족을 남 보듯 하겠는가!

땅의 기운을 받아 모든 생물이 크고 자라는 마음처럼 사람에게는 이것이 곧 어진 마음이다. 어진 자는 친척들에게 친애하고 돈독화복하는 도리를 다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족(九族)의 친척 간에 돈독하는 행위가 후시라도 멀고 가까운 것을 가려서 친함을 소홀히 할까 염려가 된다.

무릇 우리 동지들이 각자가 서로 친복하여 자신들에게까지 행하게 하고, 그리하여 백제가 내려가도록 친복하는 것이 깊은 뿌리내려 변함없이 행하면 이 세상의 모든 보물이 될 것이요,

자손들의 계도 감히 불행의 침범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 낼 수 있을 것이니 모든 것에 신중하고 근면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정음술 시월 하한

수강용서

번역 : 양영남 19대손 김경진